

12.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

생각할 점.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의 관계

1. 정치, 종교 분리가 없었다. 정치는 (신의 뜻을 따르는) 종교적 행위며 종교는 대중적/정치적 예전(例典)
2. 예수가 (지금의 의미로) 로마를 상대로 직접적인 반란(겔롯당원)을 도모했다기 보다는, 자국내 이런 로마제국에 협력하는 종교지도자에 대한 투쟁, 갈등 (예수의 죽음은 ①종교재판 ② 정치적 처형)
3. 대표적 인물: 바리새인 (마태 29; 마가 16; 누가 27; 요한 20; 행 9; 빌 1)

I. 안식일에 합당한 일(ἔξεστιν “Is it lawful...?” => 마 12:1-21)

A. 안식일의 의미

- 쉼 (창 1:2-3)—1 주/7 일 cycle=> 제 7 일 (마지막 날)=> 1 주에 한번
- 종업원에게 안식(출 20:10)//신 5:14, “네 남종, 여종도 너처럼 쉬도록”(עֲבָדֶיךָ וְעַמְּךָ כָמוֹךָ יָנוּחוּ)
- “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”=> 안식일에 대한 예수의 해석. 배고픔(의식주/필요)이 종교의식(제사, 제도)를 앞선다. “잘라 먹다”(마 12:1, ἤρξαντο τίλλειν στάχυας καὶ ἐσθίειν.). 비교) 막 2:23 (이삭을 자르니, ἤρξαντο τίλλειν στάχυας)
- 인자(人子)는 안식일의 주인=>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, not vice versa (막 2:27)

B. 손마른 자를 고침 (12:8-21)

-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. 왜? 이 이야기의 초점=> 갈등 (바리새인/종교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케 함). 곧 소위 ‘병고침’/기적과 동떨어짐. 그렇다면, 어떻게 읽을까?
- 예수와 이사야 41:1-4 (Servant Song). 성서/전통=> 정체성(Identity). 예수—물론 마태복음이 본 예수—의 자기이해. ①소명의식(θήσω τὸ πνεῦμά μου ἐπ’ αὐτόν); ②심판(κρίσις => מִשְׁפָּט)=>정의(justice). 정의란 하느님의 뜻/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일; ③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음=> 로마제국에 대해 no!
- 다분히 정치적 행위. 고로 종교지도자가 예수를 제거/처형할 궁리를 꾀함(ἀπόλλυμι=> 2:13)

II. 종교지도자들과 분쟁(마 12:22-37)

A. 발단: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된 자

- 원인: 귀신들림(δαίμονιζόμενος) => 치료는 귀신을 내어쫓음. Q: ‘귀신’은 누구/무엇인가?
- 도전: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. (초점이 시력회복, 말에 있지 않음)
- 결국 이데올로기/가치관의 대립
나는 거룩한 소명을 배신해버린 제도와 구조의 실제적 영성을 “악마”라고 말하는 것이다. 내가 “지배체제”(Domination System)라고 표현할 때는, 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(연결망)가 우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. 지배체제가 이 세계를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정신(영)을 나는 “사탄”(Satan)이라고 부른다. (윌터 윈크,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, p. 35)

B. 일관된 삶: 생각, 삶, 열매

- “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”=> 가치관과 행동/삶의 일치. (별 의미없는/gossip 성) 말언에도 책임을 져야 (36 절)
- 네 말로 의롭다 함/정죄함을 받는다=>마 7:2 (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를 돌아보아야)

생각해 보기

1. 성령을 훼방하면 국물도 없다(마 12:31-32). 왜?
2. 표적을 구한다(12:38).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며 요구하는 표적은? 그에 대한 내/우리의 답은?